

관광자원화를 위한 문화재보호구역 내 미술관 리노베이션 계획연구
-사적 제314호 광주 분원리 조선백자도요지 내 폐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useum Renovation in the Preserved Area of Cultural Properties for Sightseeing Resources

주저자 : 정영환(Jeong, Yongwhan)

경동테크앤디자인

공동저자 : 유보현(Yoo, Bohyeon)

경기대학교 조형대학원

1. 서론

- 1.1. 연구목적
- 1.2. 연구범위 및 방법

2. 문화재보호법과 정책의 검토

- 2.1. 문화재보호법
- 2.2. 문화재보호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관광자원화의 이론적 고찰

- 3.1. 관광자원화의 의의
- 3.2. 관광자원화를 위한 계획연구 대상지에 대한 고찰

4. 전시미술관으로의 리노베이션을 위한 고찰

- 4.1. 문화재보호구역 내 건축물의 리노베이션 정의
- 4.2. 문화재보호구역 내 건축물의 리노베이션 유형

5. 광주분원리 분원백자미술관 (폐교의) 리노베이션 계획연구

- 5.1. 타당성 및 디자인개요
- 5.2. 연구 대상지 및 건축공간 개요
- 5.3. 건축공간계획
- 5.4. 전시연출 구성계획

6. 결론

참고 문헌

(要約)

문화재의 이해는 당시 사회상의 이해와도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우리 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중한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관리하여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는 일은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업의 하나이며, 국민의 문화의식 제고와 민족 문화의 창조적 발전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 먼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정책은 많은 전통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데 큰 몫을 다하고 있다. 특히 문화재보호법 중 ‘문화재보호구역’은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재와 문화재 주변의 역사적 문화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해당 문화재 특히, 매장문화재의 발견과 문화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 주변 사유지에 대한 재산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됨은 물론 지역 경제발전에도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까지 경제논리에 맞는 국토개발과 전통문화유산의 보호는 항상 정책논리에 의해 충돌하여 왔고 그 대립은 지역주민의 많은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공공시설인 폐교의 리노베이션(renovation)을 통해 매장문화재 보호의 적절한 방법·전시공간계획 및 전시매체·부대시설을 제안함으로써, 부동산문화재(매장문화재)를 보호함과 동시에 주변 거주자들의 문화적·경제적 혜택 증대를 위한 실증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appreciation of cultural properties related with what the aspects of society was is mandatory to understand our culture correctly. To make over all cultural properties to our descendants without breakage or damage is our natural duty and national obligation.

On the contrary, inhabitants in the preserved area should be restricted and controlled by the cultural property law. The conflict between the inhabitants in the preserved area and the government raises economical problems and damages all the time. Especially it is time to discuss to mediate between them and solve the problems. This feasible study is a proposal to settle them up through renovating abolished school in the preserved area to the museum and a case to preserve the cultural properties as well as habitant's assets in that area.

(Keyword)

cultural properties, sightseeing resources, renovation,

1. 서론

1.1. 연구목적

우리 나라의 문화재는 선조들의 지혜와 슬기 그리고 그 시대의 삶과 철학 그리고 예술이 담겨있는 소중한 민족적 유산일 뿐 아니라 세계화시대에 한민족의 위상과 정체성(Identity)을 확고히 해주는 크나큰 국가적 자산이며,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해 드물게 단일민족을 유지하면서 한반도라는 특정지역에 매우 우수하고 독창적인 문화를 꽃피워 온 문화국가로의 산물로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소중한 민족적 재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소중한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관리하여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는 일은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업의 하나이며, 국민의 문화의식 제고와 민족문화의 창조적 발전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 먼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19차(2001년 7월 1일)에 걸친 제·개정을 통해 우리 나라의 문화재보호 정책은 많은 전통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데 큰 몫을 다하고 있다.

특히 문화재보호법 중 ‘문화재보호구역’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국보, 보물, 중요민속자료 등) 중 부동산 문화재에 대하여 당해 문화재 보호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것으로 문화재를 보호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하는 것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재와 문화재주변의 역사적 문화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요소이다. 또한 21세기 우리사회는 지속적인 경제의 성장과 소득분배 구조의 개선 근로조건 향상 등으로 문화와 여가의 상당 부분이 보편화되고 대중화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자아실현의 증시로 정신적·문화적 측면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급속히 확산·정착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복지의 개념도 경제적 측면의 소극적 복지개념에서 벗어나 문화적·정신적 의미의 문화복지를 아우르는 적극적 개념으로 확대돼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정책 또한 문화복지와 직접 연관된 문화재보호의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문화재청이 동해안의 대표적 해돋이 명소인 강릉시 강동면 해안 절벽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려 하자 지역 주민들이 “사유 재산 침해하는 문화재 지정 철회하라”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걸며 적극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국민이 문화재보호의 참뜻을 인정하고 모두 동참하고 있지만 유독 자기가 속한 지역에 대한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우선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한 주변 사유지에 대한 재산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됨은 물론, 혹은 물질적 보상이 따른다 해도 그 시일이 얼마나 걸리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또한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

로 해당 문화재 주변이 우수한 관광지역으로 변모하여 많은 혜택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고 해도 그 개발의 시간과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

이제까지 문화재 등 전통문화유산의 계승·발전 및 민족문화창달을 위해 문화재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점차 중요한 정신적·문화적 의미의 문화복지에 부합할 수 있는 문화재보호정책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제논리에 맞는 국토개발과 전통문화유산의 보호는 항상 정책논리에 의해 충돌하여 왔고 그 대립은 지역주민의 많은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및 사유재산 보호라는 문제와 전통문화유산의 보호라는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잠재적인 문화·관광자원을 발굴하여 창의적인 관광기술(TT, Tourism Technology)을 접목,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는 ‘문화관광자원화’ 즉, ‘문화컨텐츠 연계 관광자원화’를 통해 기업과 민간·정부의 문화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구시대적 산업사회의 패러다임(Paradigm)에서 벗어난 문화예술관광이라는 새로운 산업구조를 형성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문화재보호구역 내 위치한 시설들의 리노베이션이 관광자원으로서 그 가치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가를 면밀히 조사하여 법적 테두리 안에서 문화재의 적절한 보호와 함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새로운 고 부가가치의 창출 등 이 모든 조건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재 문화재보호법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국보, 보물, 중요민속자료 등) 중 부동산 문화재에 대하여 해당 지역 내 산재한 공공시설 및 그에 준하는 시설을 조사 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활용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광주분원 조선백자도요지 관광자원화 사업을 전제로 문화재보호구역 내 공공시설인 폐교의 리노베이션을 통해 매장문화재보호의 적절한 방법제시·전시공간계획 및 전시매체·부대시설을 제안함으로써, 부동산문화재(매장문화재)를 보호함과 동시에 주변 거주자들의 문화적 혜택 증대를 위한 실증적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본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방법으로는 첫째,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보호정책의 검토를 바탕으로 현재 문화재관련 법규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알아본다. 둘째, 관광자원화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계획 대상지역의 자원화 가능성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올바른 자원화의 길을 모색한다. 셋째, 문화재보호구역 내 위치한 시설의 리노베이션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자원으로서의 개발 및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여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유사 지역의 시설

들에 용도 전용에 따른 관광자원화의 다양성을 제시한다. 넷째,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적용한 사례로서 '광주분원 조선백자도요지 관광자원화 사업(사적 제314호)' 가칭 '분원백자미술관'의 리노베이션을 통하여 하나의 대안(Alternative)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문화재보호법과 정책의 검토

2.1.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보호는 거시적으로 보아 새로운 민족문화의 창조, 새로운 국토개발의 비전(vision)과 연결된 문제이기는 하나 직접적으로는 보존·활용의 문제라 하겠다. 즉 우리 나라 문화재보호법 제1조에는 “문화재를 보존하여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는 적극적으로 문화적 가치를 연구 보존하고 그것을 문화발전을 위해 활용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문화재의 활용이란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현상변경의 행위는 수리·정비·보존 처리, 보호구역 안에서 골재 채취 또는 건축물, 도로, 관로의 설치 등이 있으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굴착행위,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처럼 문화재보호법에서 보호구역 내에 있어서의 모든 현상변경 행위와 보호구역 밖의 보존에 영향을 준다는 판단이 되는 현상변경 역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며, 문화재청장의 허가는 문화재위원회라는 전문집단의 심의를 통해 보호구역 내·외의 현상변경 행위가 보호와 보존에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불·허가가 이루어진다.

현상변경 허가의 절차를 살펴보면 허가를 받고자 하는 이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에 제출하면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그러면 불·허가 판정을 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되어있으며 허가 신청서의 기술 내용은 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소재지, 공사 명칭, 현상변경 기타 보존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필요로 하는 사유, 착공일, 준공예정일, 설계서 및 현장사진, 소요경지 등을 기술하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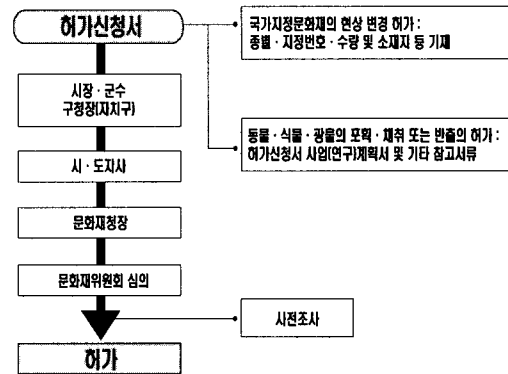


그림 1. 보호구역주변 현상변경 절차

2.2. 문화재보호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우리 나라의 문화재보호 정책이 그간 진전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 내용으로는 문화재보호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적 평가·문화재정책의 위상 미흡·문화재인력의 태부족·해외의 개인 소장 문화재의 미 파악·근대문화유산 보호법규 미흡·지방 문화재행정의 '난맥상'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우선 본 연구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매장문화재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매장문화재 분포문제에 있어서 사실 땅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완벽히 파악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전국적인 매장문화재 분포현황의 체계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매장문화재지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 계획에 앞서 참조한다면 개발에 따른 각종 시비의 소지가 줄어들 것이다. 특히, 지표조사 의무화제도 실시에 따른 조사비용·기간 등을 절약하는 측면에서도 전국적인 매장문화재 분포현황의 체계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또한 발굴비용 부담에 관한 문제인데 건설토목업계를 비롯한 피해당사자는 물론 개발담당 공기업과 문화재 전문가들로부터도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지적되어 온, 현실적으로 우리 문화재보호정책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한다.

1995년 1월 5일 공포하고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건설공사 시행 중의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기 이르렀다. 그러나 이 규정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가능 대상도

1) 문화재보호법 제20조

2)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 행하여지는 다음의 행위는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m 이상의 굴착 행위,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문화재의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기타 국가지정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이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들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현상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단독주택 대지 495m², 건축연면적 264m²이하, 농·임·어업인 시설물 661m²이하, 개인사업자 건축물 대지면적 330m², 건축 연면적 261m²이하³⁾ 등으로 매우 소규모공사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매장문화재 유적조사 발굴에 따른 공공성과 책임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학술조사 보고서의 부실을 막고 발굴에 따는 학술, 시술용역 제도의 정착과 발굴비용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⁴⁾ 현재는 발굴비용의 확보와 정산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다보니, 실컷 고생을 한 발굴단도 공연한 의심을 받기도 하고 개발주체는 끝없는 설계변경 요구에 시달린다. 매장문화재 조사로 중요유물이나 유적이 알려지게 된 경우 그 수혜자는 국민 모두라고 할 수 있는 바, 이의 발견에 비용을 부담한 측 혹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응분의 보상을 하는 것은 문화재의 파괴를 예방하며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하게끔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현 제도에서는 허가 없이 자기 땅을 파헤쳐 문화재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만 문화재가 있음을 신고한 후 발굴한 결과에서 중요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삶의 질'의 변화는 일반국민들의 우리문화에 관심과 문화재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문화재보호정책도 이제는 이에 적합한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요구받고 있다. 지금까지 새로운 정책의 개발 또는 방향제시보다는 기존 문화재 관리·보존의 기능적인 집행에 중점을 두었던 우리의 문화재행정이 사회·환경·문화적인 변화에 따라 아끼되고 있는 새로운 정책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1) 전국 문화유적 분포현황의 체계적 조사

전국문화유적의 체계적 조사·관리가 시급한 바, 전국 문화유적 분포현황을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전국의 150여 개 시·군별 지도로 제작하여 개발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반영하여 제도화한다.

2) 매장문화재 관련 문제점의 개선 방안

(가) 매장문화재발굴 전문기관과 전문인력 확충

각종 개발로 인한 토지수용의 증가에 따라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이 급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매년 1천여 건에 지나지 않던 발굴조사가 1981년에는 1만 건을 돌파했으며 현재는 매년 2만여 건을 상회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곧 발굴 건수가 매년 1천 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⁵⁾ 따라서 발굴조사의 전문화·신속화로 문화유적의 보존강화와 발굴조사의 공공성·책임성을 확보하고 각종 공공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앞서 누차 강조한 대로 발굴전문기관과 전문인력의 확

충이 시급하다.

(나) 중앙 매장문화재 보관 센터 건립 추진

현재 추진 중인 중앙단위의 매장문화재 센터 설립을 조속히 완료하여 매장문화재 보존관리의 정책·조사·연구를 담당하는 국가적·전국적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즉, 각 발굴기관 간의 발전적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개발하고 또한 각급 기관의 발굴 출토유물을 집중적으로 보관·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발굴비용 부담제도 개선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중 발견한 매장문화재의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그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여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률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부담토록 하고 오히려 시행업자는 예외적으로 분담할 수 있다는 쪽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문화재는 원래가 공적 보존물로서 발굴 후에는 온 국민의 자랑스런 재산이 되는 '공물'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의 전반적 실사가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다면 최대한의 예산확보를 통해 지원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지원 여부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민간 소유 토지에 대한 문화유산 발굴비용은 우선적으로 전액 국고부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의도적인 훼손이나 유기를 막아야 하며 이들 지역에 대한 관광육성 등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하여 개발육구를 충족시키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사유재산권 보호 강화

문화재청의 대 국민 여론조사에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의 경우 그에 따른 일반국민의 피해를 정부가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70.6%이었으며 보상 대신 정부가 매입하여야 하는 견해가 27.9%로 나타났다. 이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문화재 보호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개인이 경제적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보호구역' 내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보상대책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 50%인 종합토지세의 면제를 비롯한 '비과세' 적용 등 당장 실현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통해 사유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화재보호정책에 의해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는 사람들에게 금전적 보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명예적 보상'을 병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문화재 관련 단체의 명예직 직위를 부여한다든지 지역문화행사에 최상의 예우로 초대한다든지 등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는 우리의 정서를 활용하는 방안도 유효하리라 본다.

3)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4항 및 시행령 제31조의 2

4) 정문교, 문화발전과 행정, 민속원, 1999, p140

5) 정태환 외 공저, 문화대국으로 가는 길, 지식산업사, 1995, p287

3. 관광자원화의 이론적 고찰

3.1. 관광자원화의 의의

관광자원화는 사물과 활동이 지니고 있는 관광잠재력을 현 재화시키는 작업을 의미한다. 즉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 또는 일정한 변경을 통하여 관광잠재력을 지닌 사물과 활동을 볼 거리화 = 보는 관광형태(make things to see)와 = 참여관광형태(make things to do)시킴으로써 관광자원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를 구현시키는 일련의 행위로서 이는 관광개발에 포함되는 개념이다.⁶⁾ 그러나 관광개발은 관광매력을 지닌 관광소재 를 관광자원화하고 이를 다시 관광상품화하며 나아가 이를 광고·홍보하여 관광객이 이용·소비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광자원화는 관광상품화가 되기 전 단계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관광개발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의미하는 관광상품이란 교환가치를 어느 정도 지니고 있는가를 평가하여 그것이 매매될 수 있는 관광재와 서비스가 되게 하는 과정이며 관광자원화된 사물과 활동의 교환가치에 대하여 가격이 매겨지는 교환체계인 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관광자원화는 사물과 활동이 지니고 있는 관광 잠재력을 현재화시키는 작업인바 관광자원화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첫째, 공간 이용 측면에서 기존 공간 활용형과 새로운 공간 조성형으로 둘째, 관광자원소재의 조합 여부에 따라 단일형과 조합형으로 셋째, 관광자원의 도입 여부에 따라 도입형과 원산지형으로 넷째, 관광자원소재의 변형 여부에 따라 무변형과 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광자원소재의 장소·규모·내용·구성 등에 변화 없이 그대로를 관광자원화 하는 방법에는 다시 오감에 노출, 해석설명, 재현, 기구와 시설의 도입, 기술습득 등이 있다. 그리고 관광자원의 장소·규모·내용·구성 등을 분해·확대·축소시키는 관광자원 소재의 변형 관련 방법에는 무대 작품화, 테마의 형상화, 기구나 장비로 축소와 확대, 볼거리의 늘거리화, 테마의 늘거리화, 늘거리의 변형 등이 있다.

3.2. 관광자원화를 위한 계획연구 대상지에 대한 고찰

‘광주 분원리 조선백자도요지’ (사적 제 314호)는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산 5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적지의 순수 면적은 3,636㎡ (약 1,100평)으로 A지구와 B지구로 구분되어 있으며 문화재보호법 제74조와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42조 제23항에 의하여 추정 사업지의 총 면적은 약 7,131㎡ (약 2,100평)으로 보호법의 적용 면적은 지정된 면적보다 약 2배 이상으로 증가된 상태이다. 특히 분원 관요지는 한 곳에서 150년간 도자기를 생산한 도자 유적지이며 분원리에서 생산된 도자기 중 ‘철화백자용문호’는 미국 크리스티 경매에서 842만불의 도

자기 경매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었다. 정부는 분원리 일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일부를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 (사적 제 314호)으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최근 이 일대의 발굴이 진행되어 관심을 끌게 되면서 현장 유적의 망실 등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어 이곳의 문화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이 지역의 문화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문화관광자원화 한다는 방침아래 분원리 조선백자도요지 내 폐교를 분원백자미술관으로 전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원화와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4. 전시미술관으로의 리노베이션을 위한 고찰

4.1. 문화재보호구역 내 건축물의 리노베이션 정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호조치로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건축물들은 혹 발생할 수 있는 매장문화재의 발견에 대한 보존과 보호가 의무화 되어 있는 건축물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러한 건축물을 ‘리노베이션한다’ 함은 보존(Conservation)의 개념과 보존(Preservation)의 개념을 포함한 건축물의 재활용을 행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본 연구가 말하는 리노베이션의 의미는 그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미 중에서도 문화재보호구역 내 건축물에 행해지는 보존적 환경의 제공과 동시에 재사용을 위한 변환과 재정비(Refurbishing)⁸⁾ 등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여기서 본 연구 계획 대상지의 보존적 환경의 제공은 재정비(Refurbishing)보다 우선 시 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예로 노후 된 재래식 화장실의 재정비를 위한 정화조 교체작업 시 매장문화재의 보존적 환경을 위해 기존의 재래식을 사용하면서 옥탑의 물탱크를 이용한 수세식의 부분적인 적용만으로 해결한 것처럼 지정문화재의 보존·보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4.2. 문화재보호구역 내 건축물의 리노베이션 유형

유형분류는 실제로 리노베이션을 하게 되는 현실적 상황에서 과연 어느 측면에 더욱 가치를 두고 리노베이션을 하게 되는지의 가치적 기준이 되는 것이다. 리노베이션을 위한 대상 건축물의 가치 판단 기준⁹⁾은 다음과 같다.

6) 이관원, 관광자원론, 기문사, 1997, p25

7) 문화재보호법 제74조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42조 제2항 : 문화재의 외곽경계 500m 이내 건설공사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필요

8) 오래된 건축물 등을 새롭게 단장한다는 의미로 낡고 못쓰게 된 부분을 재정비하여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9) 허법팔, 도시건축의 리노베이션, 플러스 8706, p40

판단기준의 유형	대상 건축물
역사적 가치	- 역사적 사건의 무대가 된 건축물 - 역사발전의 증거가 되는 건축물 - 역사적 인물과 관계가 있는 건축물
건축적 가치	- 유일한 양식이거나 기술을 나타내고 있는 건축물 - 어느 정도 완벽한 양식을 이루고 있는 건축물 - 중요한 건축적 기술을 나타내주는 디테일이 풍부한 건축물 - 당시의 건축적 기술을 나타내주는 디테일이 풍부한 건축물 - 후기 그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시대의 일정한 구조를 지닌 건축물 - 아직도 대중에게 미적인 즐거움을 주고 기억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실용적 가치	- 아직도 구조가 튼튼한 건축물 - 미래에 사용하는데 기능적인 잠재력이 있는 건축물 - 적절한 기본적 설비와 완벽성을 유지하고 있는 건축물 - 현재의 토지 이용에 양립할 수 있는 건축물
문화적 가치	- 건축 자체가 1급이 아니더라도 지역성이나 사회성을 가지고 지역문화 진흥에 도움이 되는 건축물

표 1. 리노베이션을 위한 대상건축물의 판단기준

5. 광주분원리 분원백자미술관 (폐교의)

리노베이션 계획연구

5.1. 타당성 및 디자인개요

전통문화 체험에 대한 문화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요즘,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접촉은 더욱 중요해진다. 그러나 실제 우리 전통문화체험에 대한 접근은 아직도 모든 이들에게 멀게만 느껴지며 직접 접해 볼 수 있는 기회 또한 그리 많지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재보호구역 내 위치한 폐교의 활용은 큰 의의가 있다.

사적 제 314호인 광주 분원리 조선백자도요지에 위치한 폐교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에 의해 다른 용도로의 전용 및 매장문화재 보호 차원에 의한 철거는 불가능한 상태이며 농촌인구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한 원래 용도로의 사용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는 하나의 역사성으로 인식가능하며, 이 공간을 법제의 적용이라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전시미술관으로의 활용을 꾀한다면 문화관광자원화로의 측면에서 많은 공공성의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광주 분원리 일대는 역사적·문화적·지역적인 우수한 조건으로 한층 더 문화관광자원화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개인 사유재산측면에서 발생하는 자산가치로서의 수익성을 부가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이러한 여러 관점에서 문화재보호구역 내 폐교의 올바른 전용의 한 방향은 전시미술관이며 더욱이 지정문화재의 보호뿐 아니라 문화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연구·수집·교육이라는 많은 부가적 이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한 방법이 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계획안은 문화재보호구역 내 위치하고 있는 폐교를 분원백자미술관으로 리노베이션 하는 작업이다. 또 그 계획전개에서는 폐교의 문화관광자원으로의 활용기

능성과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현대인들의 문화체험에 대한 갈망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광주 분원리 조선백자도요지라는 지정문화재를 바로 가까이서 보고, 느끼고,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활용은 그 어떤 관광자원보다도 전통문화를 대중에게 알리고 전달하는 기능에 있어서 효과적인 일 것이다.

구분	단계	의도	내용
분석 단계	분석	· 리노베이션의 원인 분석	· 건축물에 제기되는 원인 분석을 통한 새로운 기능 부가 및 활용에 대한 가능성 검토+지역민의 의도+건축물의 가치판단
	자료수집 및 연구	· 건축물의 현황분석 · 매장문화재의 보호환경 · 법적고찰 · 대지현황분석 · 관련자료수집	· 기존 문화재현황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가능한 리노베이션 검토 · 주변 환경설정의 자료수집 분석을 통한 본 건물에 맞는 환경설정의 파악
	방향 설정	· 리노베이션 추구 방향 설정 · 범위설정	· 분석+자료수집 및 연구를 통해 리노베이션 방향 설정 · 건축물의 가치판단 분석을 통해 보존, 복원의 범위를 설정
디자인 단계	디자인 개념 및 의도 설정	· 디자인 개념설정 · 전시테마설정 · 전시의도설정	· 디자인 의도와 전시 의도 설정을 통해 전시테마를 설정한다.
	디자인 계획단계	· 디자인 계획(공간계획, 의장계획) · 전시계획(전시연출방법 계획, 전시물선정)	· 전시계획을 통한 디자인 계획 · 전시물 선정 및 배치계획 · 복원 및 보존환경 계획
종합	디자인 분석 및 평가	· 리노베이션 가치추구 방향의 적합성	· 보존 및 보호환경에 충실한가? · 활용의도에 적합한가? · 사용된 디자인 기법의 특성은 적합한가? · 전시의도에 맞는 디자인을 행하고 있는가?

표 2. 디자인프로세스

이러한 내용을 주요의도로 <표 5-2>에 제시된 디자인 프로세스에 맞추어 본 계획안을 전개한다. 이러한 틀은 본 연구의 의도와 분석, 결과물의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5.2. 연구대상지 및 건축공간 개요

1) 연구 대상지의 사업개요

- 명 칭 : 분원 조선백자도요지 문화관광자원화 계획 (가 칭 : 분원백자미술관)
-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신5번지 일원
- 지 역 :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사적 제 314호)
- 사업면적 : 약 7,131㎡ (약2,100평)
- 사업기간 : 2003. 4. 8 ~ 2003. 8. 15
- 사업시설 : 분원백자미술관(가칭), 전통가마, 다실, 체험관, 영상관
- 주차대수 : 33대 (대형5대, 소형28대)

2) 연구 대상지의 특성

- 사업 대상지 중 일부(사적지)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됨
- 사적명 : 「광주 분원리 조선백자 도요지」 사적 제314호
- 사적지 면적 : 3,636㎡ (약 1,100평)

-문화재 보호법 제 74조,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42조 2항 : 문화재의 외곽경계 500m 이내 건설공사 시 문화재 위원회 심의대상)

3) 계획 연구 대상지 분석

-접근성 및 연계성 : 중부고속도로 및 국도 337호선과 연계한 진입도로로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 도요지와 여주 및 이천 등이 인접해 있어 도자문화의 연계성이 우수

-자연환경 : 한강(팔당호)을 조망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비경을 제공

-기능성 부여 : 이용자를 위한 전시, 체험공간 등을 수용, 도자문화의 우수성을 알 수 있도록 기회제공의 장으로 활용

-지형 및 현황 : 기존 폐교부지로서 평지이며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의 발굴지 복원 및 현황유지가 요구되는 지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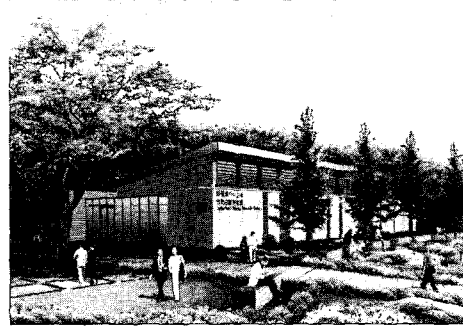


그림 3. 분원백자미술관 예상완성이미지

-진입로 인근에 주차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도입부에는 현황 통로를 활용하여 진입을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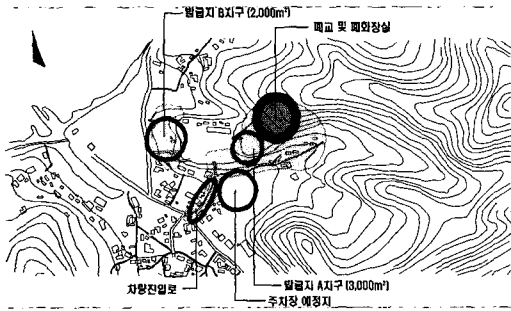


그림 2. 계획연구대상지 시설현황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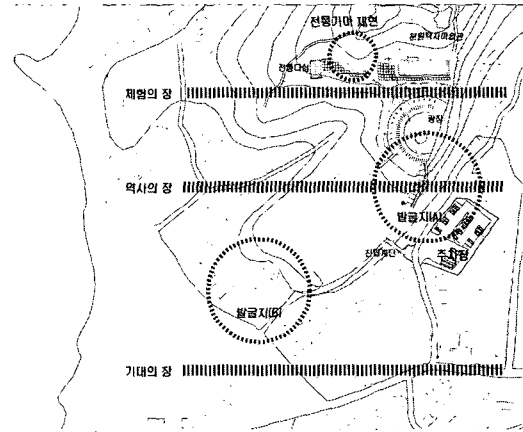


그림 4. 배치도

5.3. 건축공간계획

조선백자 도요지의 도자사적 가치가 재조명 될 수 있도록 발굴지 현장에 분원백자미술관을 설립하여 현장유적(도판)의 보존 및 문화재적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전시관으로서 역할을 한다.

또한 연구 대상지 내 폐교와 화장실을 리노베이션하여 발굴지 내 문화재 훼손이 없도록 설계방향을 정하며, 추후 발굴지 복원이 가능하도록 효율적 활용방안을 수립함은 물론, 국내·외 방문객들이 조선백자와 관련된 문화적 체험(백자 만들기, 차 마시기 등)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함을 본 계획 연구의 전제로 한다.

1) 배치계획

-미술관 주출입 유도축을 중심으로 수변경관 조망 및 관요지 도공의 추모를 위한 우회공간을 배치하고 미술관 정면부에 원형광장을 조성하여 이벤트·문화행사 등을 위한 여백의 장으로 활용한다.

-폐교 및 화장실을 연계시켜 미술관 주 출입공간으로 활용하고, 리노베이션을 통한 전시 및 체험관 기능을 수행한다.

-수변경관과 함께 차(茶)를 즐길 수 있도록 남한강 조망이 가능한 위치에 전통 양식의 다실을 계획하여 배치하고 인접 지역에 전통가마를 복원 배치하여 도자사적 체험의 장으로 계획한다.

2) 평면계획

(가) 분원백자미술관 (전시관)

-주 진입부 HALL은 기존의 폐교 및 화장실의 연결공간을 이용하여 진입 HALL로 형성

-기존 평면을 최대한 활용하여 영상관/전시관/체험관으로 공간 배치하고 복도부분은 기획전시실로 계획

-기존 화장실은 재래방식으로 계획하되 별도 옥외시설물로 계획함으로써 추후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 가능토록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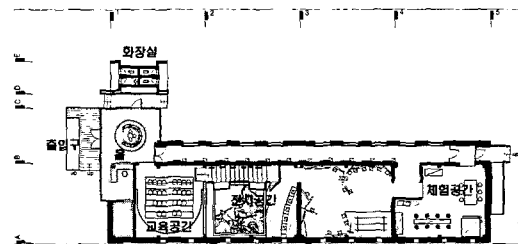


그림 5. 평면도

(나) 입면계획

- 자연 친화적 건축재료를 이용한 건축물로 주변환경과 어우러지는 형태 계획
- 주변환경을 받아들이며 순응하는 외관 형태 계획
- 기존 건축물 연결로 MASS의 변화를 피하였으며 연결 HALL 부분을 투명 유리면으로 처리하여 주변 경관으로의 개방 및 포용의 개념을 도입
- 자연재(돌·벽돌·목재)와 인공재(유리·금속재)를 대비하여 외장을 구성함으로써 문화재 발굴과 전시의 시공간적 이중 code를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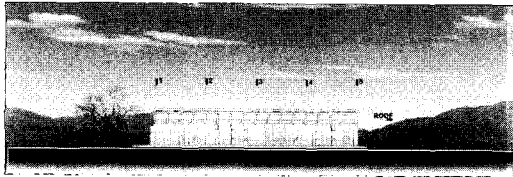


그림 6. 정면도

(다) 단면계획

- 기존건축물 내부에 별도 구조체를 형성함으로써 전시공간 확대 및 효율성 제고
- 건물 전면에 고창은 실내에 자연채광이 가능토록 하며 Louver장치를 통해 채광량 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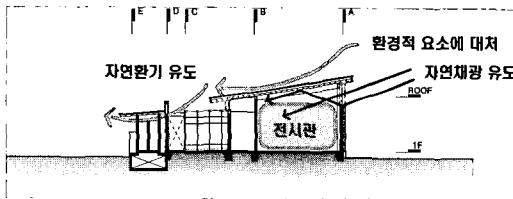


그림 7. 단면도

(라) 설비계획

- 전기 열원을 이용 냉·난방계획
- 덕트시스템 도입으로 건물 천정에서 공급
-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기계실 설치
- 조명 자동제어장치 설치로 시설 특성에 따라 운영하여 에너지 절감의 효과 증대

5. 4. 전시연출구성계획

1) 전시기본방향 및 주제

(가)기본전제 도출

- 세계의 도자유적 중심지로서의 도약, 그 가치를 높이는 문화유적 관광지
- 조선왕실의 도자기 제조창을 약 500년간 직영한 곳으로 세계적인 문화유산
- 150년간 도자기를 생산한 세계적 도자유적지
- 경기도 광주시 분원리 기마터·세계 도자기공예의 중심지

- 분원리에서 생산된 철화백자용문화는 세계 도자기 경매 사상 최고가 기록
- 광주·여주·이천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동부권 도자기 벨트를 구성하여 세계 도자기엑스포 개최
- 도예관광 특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력 활성화
- 지역 내 문화재보호구역의 공공시설 리노베이션을 통하여 공해 없는 관광산업으로 개발하여 지역민에게 경제적 혜택 제공
- 세계적인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이 곳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
- 이 지역의 문화재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국가 지정

(나)주제선정

-전시주제 : 세계로 도약하는 도자기공예의 새로운 문명 창조지 『분원백자미술관』

- 전시주제 개념 : 세계적 조선백자 도요지의 도자사적 가치가 재조명될 수 있도록 문화적 체험과 조선백자 전시를 통하여 새로운 환경, 새로운 세기에 대한 희망을 담는 한국 도자 문화의 세계적 역할 추구

(다)전시기본방향

- 세계적 조선백자도요지의 도자사적 가치가 재조명될 수 있도록 계획
-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 발굴지의 복원 및 현상유지를 위한 활용방안 수립
- 조선백자와 관련된 연구·보존·홍보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
- 출토유물, 관련 도자기 등을 효과적으로 전시하여 역사적 사실의 현장감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
- 시각효과를 최대화하는 최첨단 영상관 구성
- 첨단매체의 활용과 참가체험형 전시를 통한 문화적 체험의 극대화
- 전시내용과 분원 조선백자도요지의 실제 전경이 어루어지는 전시 유도

2)전시디자인 개념과 동선계획

(가)전시디자인 개념

-키워드

- 광주 분원 조선백자도요지의 세계적 우수성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창출
-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며 그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타 시·군의 모범사례로 부각
- 도예산업의 특성화를 위한 발판 마련
- 여주·이천과 연계된 도자기 벨트의 한 축으로서 그 기능을 배가
- 이미지
- 순백의 반투명질인 백자의 청초한 이미지 도출
- 천(天), 지(地), 인(人)의 조화로 형성된 도자의 새로운 미래
- 연출이미지
- 도입부는 관람객의 도자체험에 의한 결과물을 상징조형

물화하여 같이 만들어 가는 미술관으로 의미부여

- 백자의 곡선을 이용한 부드러운 순백색의 스크린 패넬로 니열식이 아닌 자유롭고 여유로운 조형요소 연출
- 출토 및 대표유물을 부각시키는 쇼룸 형태로 벽부형 진열에서 탈피해 설치미술을 감상하는 듯한 역동성 연출
- 생활도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공방도예(工房陶藝)를 표본으로 도자체험실을 구성

(나) 동선계획

- 도입부에서 기획전시실까지 원-웨이 동선체계를 갖으며 일부(도자체험실)에서는 자유동선 체계 적용
- 도자체험실은 주 관람동선과 별도의 관리 동선 체계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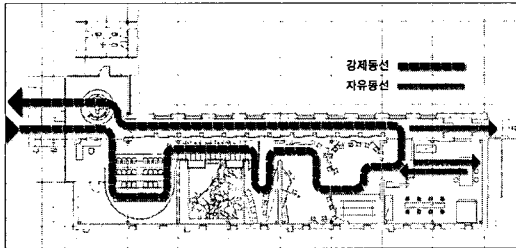


그림 8. 동선도

공간명	전시내용	연출방법
유물전시실	광주 분원에서 번조(褻造)된 백자실물을 독립형 진열장과 벽부형 진열장에 전시하고 다 박물관에 전시 중인 유물은 사이버진열장을 통해 3차원 입체영상으로 구현, 관람자가 작품을 선택하여 감상하도록 연출	실물전시/ 설명패넬
현대도자실	광주 분원의 전통을 이어가는 현대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실험적 도자공예 작품을 발표하는 신예작가들의 데뷔무대 구성	진열장실물전시/ 설명패넬
초대영상실	관람자들이 도자기를 직접 제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흙의 상징조형물과 연계하여 본 미술관을 관람자 모두가 만들어 가는 곳이라는 인식과 추억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	전기원인가마/ 전기물레/토련기/ 기타 소도구
유물전시실	이동 및 경이용 패넬 하드웨어와 이동식 독립진열장을 바탕으로 상설전시와 기획전시 모두 활용 가능하도록 가변적으로 공간을 구성	트랙형 조명/이동식패넬걸이/ 독립진열장

표3. 공간구성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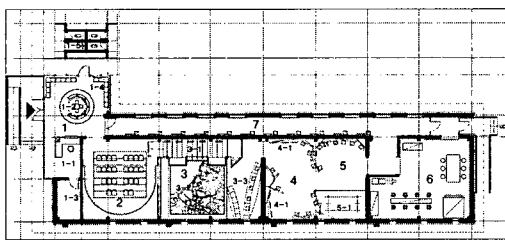


그림 9. 전시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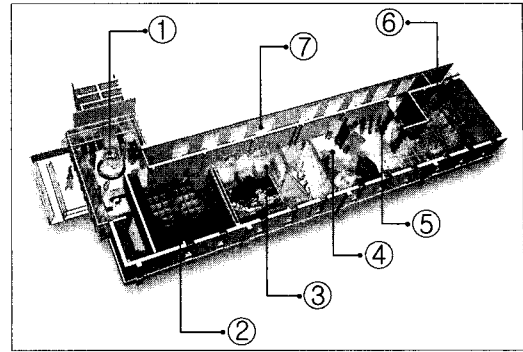


그림 10. 전체투시도

본 계획의 전시평면은 건축물의 구조특성상 작품전시공간에 융통성을 주는 오픈형을 기본으로 하여 작은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위전시공간으로 평면형태를 구성한다.

각 실별 전시공간 및 코너명은 다음과 같다.

공간명	코너명	전시내용	연출방법
도입부	안내데스크	관람에 대한 안내 및 관람질서 유지의 기능과 미술관의 위치를 나타낸 전관 안내사인 및 홍보물 등 비치	안내데스크/ 홍보물 비치대
	상징조형물	광주 분원의 대표적인 백자인 철화백자 용문호의 실무엇을 모티브로 구성한 도자기 전시대를 홀 중앙에 설치 그 전시대의 도자기들은 본 미술관의 체험관에서 관람자가 직접 제작한 도자기를 수주 후 완성품을 찾아가는 공간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자기작품을 미술관에 전시하고 있다는 색다른 경험을 관람자에게 유도	상징조형물/ 전시대/휴게의자
초대영상실		새로운 만남 - 조선백자라는 주제로 광주 분원 백자도요지의 세계적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알리고 백자를 만들었던 위대한 장인의 혼을 통해 위대한 한 국민의 혼을 깨워 새 천년 미래로 향하는 정신적인 초석을 만들므로 도자 산업을 첨단산업으로서 무한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는 곳이다.	프로젝터3대/영상시스템3면 스크린
	조선백자의 탄생	도자기의 형성과 변천을 통해 조선백자에 이르는 과정을 이미지 터널로 구성하여 곳곳에 모니터를 매입하여 내용을 함축적 이미지로 전달하고, 우리나라 백자 도요지의 분포와 그곳에서 생산된 백자의 종류를 영상정보검색시스템으로 구성	이미지터널/영상정보검색시스템/ 설명패넬
백자문화실	광주분원	광주 분원의 과거 모습을 축소 복원모형으로 전시하고 분원의 설립과 목적, 발굴과정과 모습을 그래픽과 사진으로 복합구성하고 발굴당시 출토유물을 실물로 전시	축소복원모형/ 복합구성패넬
	제작과정과 기법	분원 백자의 제작과정을 인형으로 연출하고 백자의 성형기법, 문양장식기법, 요의 구조 등을 영상으로 종합 구성하여 전시	제원모형/ 영상시스템/ 스크린 패넬

표 4. 전시연출 프로그램

번호	1	2	3	4	5	6	7
공간명	도입부	초대 영상실	백자 문화 실	유물 전시 실	현대 도자 실	도자 체험 실	기획 전시 실
코너명	1-1. 안내데 스크		3-1. 조선 백자 의 탄생	4-1. 입체 사이 버 전시	5-1. 작가 코너		
	1-2. 상징조 형물		3-2. 광주 분원				
	1-3. 창고		3-3. 제작 과정 과 기법				
	1-4. 휴게공 간						
	1-5. 화장실						

표 5. 전시공간별 코너 명 범위

6. 결론

본 연구는 국가적 자산이며 소중한 민족적 재산인 전통문화유산의 보호와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및 사유재산 보호라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모두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전통문화유산의 보호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됨과 동시에 지금까지 19차(2001년 7월 1일)에 걸쳐 제·개정을 통해 많은 전통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데 그 몫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노력과 문화행정의 발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해당 문화재 특히, 매장문화재의 발견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 주변 사유지에 대한 재산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됨은 물론 지역 경제발전에도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까지 경제논리에 맞는 국토개발과 전통문화유산의 보호는 항상 정책논리에 의해 충돌하여 왔고 그 대립은 지역주민의 많은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3년 9월 세계도자비엔날레에 맞춰 건립될 예정인 ‘광주분원 조선백자도요지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사적 제314호)’ 가칭 ‘분원백자미술관’의 현상공모 3등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문화재보호구역 내 공공시설인 폐교 리노베이션을 통해 매장문화재보호의 적절한 방법 제시·전시공간계획 및 전시매체·부대시설을 제안함으로써, 부동산문화재(매장문화재)를 보호함과 동시에 주변 거주자들의 문화적·경제적 혜택 증대를 위한 실증적 대안의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재보호구역 내 시설의 리노베이션 진행의 접근은 이제껏 그 사례가 드물었던 관계로 그 방법론의 도출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문화관광자원적 활용을 위한 방법적 접근을 이끌어내고 있다.

첫째, 우선적으로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그 지역 문화재의 특성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의 활용방향이 정해지고 정확한 이해는 효과적인 건축물의 전용(리노베이션)으로 이어지며 한국 전통문화의 중요한 일면으로서 소개되어질 수 있다.

둘째, 전용되어질 건축물의 입지적 상황과 현재의 노후화 정도에 따라 보전의 범위 및 복원의 범위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모든 건축물은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문화재가 발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리노베이션은 차후 문화재관리에 많은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보전의 강도와 활용의 정도에 있어서 중요한 한계점으로 적용될 수 있다.

셋째, 문화재보호구역 내 건축물의 활용을 위해서는 때로는 “발굴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문화재보호다”라는 무기능의 박물관적 전시물로 보전되는 방법과 지역개발과 경제적 가치의 창출이라는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높일 수 있는 그 해당 문화재의 홍보와 활용을 위한 전시미술관으로서의 전용되는 경우 등 다양한 기능이 주어질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화관광자원적 활용을 위한 방법적 접근을 통해 문화재보호구역 내 폐교의 활용방안으로 분원백자미술관으로서의 전용을 제안하였다. 즉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조선백자도요지의 도자사적 가치와 분원백자현장미술관기능 수행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의 입지적 특성과 문화관광자원적 특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대상지 내 폐교와 폐화장실을 리노베이션하여 분원백자미술관으로 기능 수행의 중심이 되도록 전용하여 문화적 가치와 문화관광자원적 경제 가치를 추구한다. 그러므로 문화재보호구역 내 건물(폐교)의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적 측면과 더불어 교육용도에서 전시미술관으로서의 전용이라는 두 가지 관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건축물(폐교)을 전시미술관으로 전용을 위한 접근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 보전 범위 설정에 따른 변화 가능 범위의 설정을 행한다. 이는 추가 문화재 발굴을 위한 한계를 선정하고 최대한 문화재를 보호와 경제적인 리노베이션 행위의 접근을 도모한다.

② 공간의 기능 변환을 위해서는 기존 공간의 용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행하여야 한다. 즉, 새로운 설비와 요소의 첨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한 방법이다.

③ 기존 기능의 동선과 새로운 기능의 부가에 따른 동선의 변환에 대한 대응은 소프트한 경량 구조물의 이용을 주로 한다.

④ 전시미술관으로서의 활용 시 대두되는 방문객에 의한 훼손 대응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전시관 기능을 위한 조도계획에서는 무엇보다도 건축물 보전과 가장 상반된 문제로 대두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전시물의 구성과 배치에서 기존 건축물이 지닌 창호의 분석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가변성 있는 이동식 패널의 활용이 가능하다.

⑥ 관람환경의 조성에서 기존 건축물의 특성과 구조에 관련되어 한계성이 드러난다. 따라서 관람의 주요 부분에서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 이러한 제한 요소는 시환경 형성에서 장애요소로서 가장 발생율이 높다. 이러한 요소의 해결을 위한

디자인적 고려가 요구된다.

⑦ 향후 150년 전의 융성했던 관요지로의 복원과 개발을 염두한 계획으로 문화재적 가치와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으로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방법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 내 폐교를 분원백자미술관으로의 전용계획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본 논문의 계획안 제시는 전통문화의 계승에서 문화재를 영구히 보존하며 국내·외 방문객들의 문화적 체험과 역사적 사실의 현장감 등의 증대를 이끌어내어 관광자원의 가치를 높여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은 곧 그 지역의 경제발전과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시켜 적극적인 문화재보호와 적절한 발굴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의 연구는 아직 미흡한 단계에 머물러 있음에 아쉬움을 느낀다. 따라서 본 연구가 문화재보호구역 활용방안의 연구로서 문화재에 대한 관심 증대를 가져오길 바라며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좀더 구체화되고 분석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정문교, 문화발전과 행정, 민속원, 1999
- 김형렬, 정책학, 법문사, 2000
- 정태환 외 공저, 문화대국으로 가는 길, 지식산업사, 1995
- 정문교, 문화재행정과 정책, 지식산업사, 2000
- 이관원, 관광자원론, 기문사, 1997
- 박석희, 신관광자원론, 일진사, 2000
- 윤용이, 경기도의 도자기, 경기도편찬위원회, 1997
- 오인욱, 실내디자인 개론
- 윌리엄 페나 외 2인, 건축계획 방법, 이강훈 역, 대우출판사, 1985
- 김종인, 프로그래밍 연구, 대광서림, 1993
- 이경희, 건축계획방법, 문운당, 1992
- 이난영, 박물관학 입문, 삼화출판사, 1972
- 이영두, 미술관 경영 어떻게 할 것인가?, 삶과 꿈, 1997
- 임채진, 박물관 건축(박물관 세대론), 공간, 1989
- 건축자료연구회, 건축설계자료설계집(박물관·자료관), 보원, 1995
- 김혜경 외, 미술관/박물관이란 무엇인가, 화산문화

<논문 및 저널>

- 박인균, 한국 문화재보호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석논, 2001
- 이왕기 외 공저, 역사적 문화환경의 효율적 보존을 위한 문화재보존 관련법 고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2호, 1997
- 영남고고학회, 문화재의 보존 보호, 1996

- 이광희, 체험관광상품 개발 활성화 방안, 한국관광연구원, 1999
- 한미라, 경기도 광주지역 도자문화에 관한 고찰,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지, 제 4권 2호, 2001
- 허범팔, 도시건축의 리노베이션, 플러스, 8706
- 강혁, 개조의 논리와 미학, 건축과 환경, 8611
- 김진숙, 리노베이션 건축행위의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1990
- 김주원, 역사적 건축물 적용을 위한 실내디자인 연구, 홍익대석론, 1994
- 정재훈, 박물관의 전시공간에 관한 계획학적 연구, 고려대석론, 1990
- 안주영, 문화재 지정 전통 상유주택의 문화자원적 활용을 위한 전시기념관으로의 리노베이션 계획 연구, 중앙대석론, 1998
- 임철호, 문화재 보호 구역내에 위치할 현대 건축물에 관한 연구 및 제안, 건국대석론, 1998
- 이기춘, 전통문화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연구 : 전통민속주를 중심으로, 인하대석론, 1991
- 임의성, 한방의 관광자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대석론, 2001

<간행본>

- 경기대학교 외, 2001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기본계획서, 1997

참고사이트

<인터넷 사이트>

- 경기관광공사 : <http://www.kto.or.kr/>
- 문화관광부 : <http://www.mct.go.kr/>
- 문화재청 : <http://www.ocp.go.kr/>
- 국립문화재연구소 : <http://www.nricp.go.kr/>
- 문화유산특별위원회 : <http://www.nationaltrust.or.kr/>